

베다니 은혜의 창문

(2026-10-04)

내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

(홍기자 지음)

■ 저자 홍기자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MRE 및 목회 상담학 석사 학위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Ed.D.)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기독교 교육학 겸임 교수), 글로벌 침례신학대학원 및 호라이즌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소년 사역, 주일학교 통합부, 영아부 사역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해왔으며, 부모 세미나, 부모 교육, 마더와이즈, 부모 기도모임 등을 통해 부모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학교에서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헌신할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어느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사역의 자리에서, 기독 대안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있다.

왜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무엇이 아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가정의 원형을 지키지 못한 아담의 가정, 어둠 속에 빛이 된 노아의 가정, 갈등의 씨앗을 품은 롯의 가정, 통제와 편애로 상처 입은 이삭의 가정, 속임수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가정 등 신구약 성경 속 20여 가정의 부모들의 실패와 회복, 눈물과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며, 부모에게는 자녀와 다시 연결되는 길을, 목회자와 사역자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통찰을, 기독교 교사와 교육자에게는 믿음을 삶으로 이어 주는 교육의 지혜를 전한다. 그들 역시 편애했고, 상처받았고, 실패했으며, 갈등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불완전한 가정들 가운데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 가셨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 교육 자료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교회 프로그램은 다양해졌고, 교육 콘텐츠는 풍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가정과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눈물과 고민, 그리고 오랜 연구와 성찰을 바탕으로 “왜 다음 세대는 떠나는가?”, “무엇이 신앙의 단절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 가정들을 통해 풀어낸다. 특히 현장 경험과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부모와 교회, 교육 현장의 언어로 풀어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와 가정의 연계,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 차례

프롤로그. 길을 열어주는 부모로의 초대

1부 길을 열어주는 부모

2부 구약 성경을 통해 본 믿음의 가정

3부 신약 성경을 통해 본 믿음의 가정

4부 성경에서 배우는 실제적인 제안

에필로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1부 길을 열어주는 부모

자녀와 시대를 이해하여 신앙의 길을 열다

소통을 해야 신앙을 전할 수 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자신의 잘못으로 다음 세대에 심판이 일어날 것을 듣고도, 그것이 자기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에 안심하며 스스로 '선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태평하면 괜찮다'는 어른 세대의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다음 세대는 어른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란 먼저 삶을 경험하고 지혜를 쌓은 사람이며, 신앙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지혜자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모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 반영해 주는 가장 중요한 어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른의 말을 '꼰대'로 칭하며 거부하는 것은 세대간 단절을 심화시키고 신앙의 단절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메우기 위해 낮아지셨듯, 부모도 자녀에게 먼저 낮아져 다가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려면 무엇보다 이해와 공감의 필요합니다. 남성은 군대 이야기로, 여성은 자녀 이야기로 쉽게 친해지듯, 같은 경험에서 비롯된 동질감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그 공유가 다시 소통을 깊어지게 합니다. 어른들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면 자녀는 삶의 문제 앞에서 결국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신앙 교육이 시작됩니다.

유대인 교육법인 ‘하브루타’는 짝과 함께 묻고 답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른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도록 돕는 길잡이가 됩니다. 성경 역시 유월절 예식의 의미를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하는 방식(출 12:26~27, 출 13:14)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질문하도록 돕기 위해 구약에서는 돌무더기, 십계명 돌판, 절기 같은 상징물을 활용했습니다. 유월절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밤을 몸으로 기억하는 과정 속에는 묻고 답하며 이어지는 신앙 교육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백성에게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물어보라 권면하고, 어른 세대에게는 성실히 답해 주라 요청하는 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 곧 신앙의 소통이자 세대 간 전수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 세운 열두 돌 역시 다음 세대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물을 때 신앙을 전할 결정적 기회가 되는 살아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아세례 기록, 돌예배 사진,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경험이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경험이 축적될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부모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영성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라: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지쳐 있는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고, 모세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경청합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조언을 전한 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통제하려 하면 자녀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드로와 모세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겨워할 때 통제하기보다 상황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 조언을 존중하며 듣는 다음 세대가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됩니다.

2부 구약 성경을 통해 본 믿음의 가정

가정의 원형을 지키지 못한 아담의 가정 이야기

믿음의 가정의 원형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며 하와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아담. 에덴동산에서 벌거벗은 채 살아간 두 사람은 겉치레 없는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와를 ‘그 여자’라 부르며 책임을 돌립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지목하는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인간 안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자극되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도 주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택은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가정 안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앞에서 아담은 책임을 지기보다 회피를 선택합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며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 역시 뱀을 탓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던 두 사람은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에덴을 떠난 이후 삶은 고된 현실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성향은 계속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는 다음 세대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책임 전가의 비극: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이는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보시는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자랐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권면하셨지만, 가인은 오히려 동생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가 가인에게서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가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이었지만, 가인은 끝내 응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으로 갑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허락하시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성공과 풍요의 가인의 가문: 동쪽으로 간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 에녹을 따 성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여호와의 향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오히려 자랑처럼 고백하며, 폭력이 후손에게 이어져 더욱 왜곡된 가치관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가문은 가축을 치고, 문화생활을 하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등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성공한 가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을 높이는 삶은 본질적으로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가문: 창세기는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며 시선을 가인에서 셋으로 전환합니다. 셋의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되며, 가인의 족보와 달리 셋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 같은 하나님 중심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며, 이는 문명의 발전

을 보여주는 가인의 족보와 대비됩니다. 이 족보는 다시 노아에게 이르러,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된 가인 계열의 패역한 삶과 대비되는 의인 노아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계보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상처에서 축복의 통로로 변화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 가정의 여정: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여행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 하나만 붙든 채 이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지역을 옮겨 다니는 등, 유목민과 같은 이동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떠남'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성경 기록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은 지역을 떠남과 동시에 이방신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정의 균열: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상처와 균열이 생깁니다. 사라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두 번이나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일을 겪으며 '내 남편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부부는 돕는 관계이지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는 성급한 선택을 합니다. 하갈이 임신 후 사라를

업신여기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상황을 회피하고 외면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가장으로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 나타나는 갈등의 씨앗: 하갈을 받아들인 선택은 갈등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장자였지만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접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분노는 이삭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쳐집니다. 물이 떨어져 통곡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물의 근원을 열어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채 두 민족 간의 오랜 앙금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처 입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사라는 반대 없이 받아들였고,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길을 떠났는데, 이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성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며, 갈등과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약속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향한 확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했고, 이스마엘의 가문도 아브라함의 간구로 큰 민족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가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특별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며,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널리 펼쳐가는 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속임수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삶 조명: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은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결을 이루며,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영적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결과 방랑자가 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사람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홀로 있게 된 그 시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잠든 밤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부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안전한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지만 과거의 잘못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는 방식으로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더 수고해야 했으며 가축의 대가도 여러 번 반복당했습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속임의 결과를 약 20년간 견뎌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큰 가정과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위기마다 속임과 도피를 반복하는 성향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결핍의 늪에 빠진 레아와 라헬 이야기: 야곱은 레아와 라헬 자

매,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 열두 자녀를 얻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 레아는 선택받지 못한 결핍을 안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기울였고, 사랑받았지만 자녀가 없던 라헬은 또 다른 결핍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자녀들 간의 반목으로, 나아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 줄 것이라는 기대는 서로를 옥죄게 만들고, 그 기대가 자녀에게 옮겨가면 자녀는 그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깊은 결핍을 온전히 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며, 그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이야기: 야곱에게 하나님은 열두 아들을 허락하셨고 열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부모의 편애로 상처받았던 야곱이었지만, 그 역시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자녀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야곱 가문의 치부까지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해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으며 아들들은 이에 잔혹하게 보복했고,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복잡한 이 가정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구원의 계획: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자란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대상이 되어 애굽에 팔려 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아버지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난을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

고 살아갈 믿음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에서의 가문 이야기: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었고, 아버지의 축복 역시 야곱에게 돌아가며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20년 후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는 복수 대신 그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가문 역시 창세기 36장에 족보로 기록하며 그의 삶을 하나의 역사로 인정합니다.

야곱의 축복기도: 죽기 전 야곱은 아들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기도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는 경고가, 유다에게는 왕의 가문이자 훗날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축복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강성한 가문이 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이며, 축복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각인되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반대로 저주와 나쁜 말도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부모는 일상의 언어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죄는 분명히 경고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에 둔감한 다윗의 가정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새의 일곱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은 가족 안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골리앗과의 전쟁 중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러 갔을 때도 편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목동이던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울의 질투와 견제를 불러와,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거친 뒤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 받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나라는 강성해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밋세바의 목욕 장면을 본 다윗은 욕망에 빠져 죄를 범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질책을 받은 다윗은 사울과 달리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었고,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서 형제 간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실수와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은 결국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 _ 압살롬과 암논과 다말 사건: 외모가 준수하고 능력도 뛰어났던 압살롬은 다윗이 특히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심히 노했을 뿐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말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압살롬에게는 아버지 에 대한 분노와 암논에 대한 복수심을 남겼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고, 그럼에도 자신은 벌을 받지 않자 다윗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반역까지 감행했지만,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편애가 만드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암논에게 적절한 벌을 가하고, 다말을 품어 주고, 압살롬에게 형제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쳤다면 갈등은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를 수 없는 꿈: 형제들이 목숨을 잃은 후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 계승의 책임자라 여기며 반역을 꾀했지만, 하나

님에 의해 시작되지 않은 권좌는 결코 성취될 수 없었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이 섬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다윗이 앉은 왕좌만 눈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로운 솔로몬 시대의 실패: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찬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풍요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종교를 위한 산당을 지어주며 혼합 신앙을 나라 전체에 퍼뜨렸고, 하나님의 여러 경고에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분열: 솔로몬의 타락으로 예고된 나라의 분열은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나이 든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권고를 따랐으며, 그 결과 나라의 분열은 더욱 확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에게 잘 전수했다면, 혹은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잘못을 타산지석 삼았다면 나라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그 회복의 기회를 놓쳐 분열 왕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3부 신약 성경을 통해 본 믿음의 가정

예수님을 품은 요셉의 가정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다윗 가문 사람으로, 마리아와 정혼하여 결혼을 기다리던 중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상

정혼한 여인이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의로운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여 마리아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며, 태어날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부 간의 신뢰는 작은 오해로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데, 신뢰가 흔들릴 수 있던 그 순간 요셉이 보인 선택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배우자가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어져 내려와 마침내 요셉의 가정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정혼자가 있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가문에 큰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며 목숨을 건 용기를 보였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양육했고, 성전에서 선지자 시므온으로부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는 예언, 즉 장차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곁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자녀를 더 높고 가치 있는 길로 격려하는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여인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다섯 여인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가문이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으로 세워진다는 진리를 보여

줍니다.

다말의 길: 가나안 여인 다말은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내쳐질 상황에 처하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됩니다. 성경이 이 치부를 굳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 가나안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며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했고, 그 선택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녀의 가문은 구원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 줄이 되었습니다.

룻의 선택: 모압 여인 룻은 남편을 잃은 후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합니다. 그 믿음과 헌신으로 룻은 보아스를 통해 새로운 가문을 이루고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됩니다.

밋세바가 받은 은혜: 밋세바는 다윗과의 불륜이라는 비극적 사건 속의 인물이며, 특별히 지혜롭거나 뛰어난 여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한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도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비의 자리 역시 거저 주어진 은혜였지만, 무엇보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 이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밋세바가 받은 은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한 간수장의 가정 이야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행 16:31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미움을 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지만, 옥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밤중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며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바울이 말립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원받는 법을 묻는데, 이는 그가 이미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어 주고 음식을 대접했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후 루디아의 가정교회를 방문한 흐름을 고려할 때 간수의 가정 역시 빌립보의 믿음의 공

동체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가정의 리더인 간수가 복음을 믿게 되자 그 믿음은 온 집안에 흘러 들어가 가정 전체가 예수님의 가문이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며, 그 영적 권위는 위치가 아니라 영성 있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가 믿는 복음이 살아 있는 실제 경험으로 자녀들의 눈에 보이도록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간수 가정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가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움켜쥐었던 재물을 나누며 정직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가치도 함께 따르는 혼합된 신앙은 사실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수도, 삭개오도, 신약의 많은 가정들도 예수님을 만나며 삶의 방향을 수정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4부 성경에서 배우는 실제적인 제안

가정과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앙 교육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의미의 가정은 성전을 지칭하는 용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가정은 가족의 결속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적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밥상머리, 침상머리, 길머리 교육은 신앙을 전수하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채우는 밥상머리 교육: 밥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단에 음식이 들어가듯, 가정에서 나누는 밥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됩니다. 우리에게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이 담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밥상을 통해 신앙 이야기, 위로, 축복 기도의 기억을 자녀에게 남겨주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 밥상을 준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위로와 치유의 밥상이었습니다. 밥상을 나눈 후 예수님은 세 번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밥상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훈계와 잔소리만 반복된다면 밥상은 자녀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가정 식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한 주에 적어도 한 번은 함께 식사하기로 정하고 잔소리와 훈계 없는 기쁨의 식탁을 마련하는 것, 둘째 밥상 준비에 자녀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 셋째 밥상머리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 넷째 명절 같은 날 정해진 음식을 먹으며 기억을 저장하는 가족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온기와 이야기가 있는 침상머리 교육: 침상머리 교육은 유대인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 아빠가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잠들게 하면, 하루 동안의 부정적 감정이 말씀과 기도로 정화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랐지만, 한나가 낳기 전부터 기도하며 양육했던 시간 덕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

났고, 결국 침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의 뇌는 잠들기 직전 가장 잘 집중한다고 하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침상도 마찬가지로, 야단치며 깨우기보다 사랑한다는 말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윗도 시편 63편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렸다고 고백합니다.

길을 따라 기억이 흐르는 길머리 교육: 길머리 교육은 실제로 길에서 이루어지는 동행의 신앙 교육입니다. 자동차라는 공간은 부모와 자녀만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대화를 늘 듣고 있습니다. 부모는 '움직이는 강단이자 움직이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이야기에서, 부활 소식에도 혼란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도 엠마오 길의 예수님처럼 혼란스러운 자녀의 길에 동행하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길머리 신앙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녀들과 캠핑이나 야외활동으로 길로 나가는 것,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을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다양한 매체로 장성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자·종보기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낸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기억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억으로 남고, 그 길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